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전 조합원의 참여와 압도적 가결! 공공노동자! 단결만이 살길이다!

■ 총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이어져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연맹 전체 회원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다. 29일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자원기술노조, 한국수산업자관리공단노조 등 5개 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투표를 마친 가운데, 연맹 산하 25개 회원조합중에서 선거에 돌입한 2개 노조를 제외한 전체 회원조합이 30일 중으로 총파업 투표를 마칠 예정이다. 높은 참여율속에서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는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가짜 정상화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전환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의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 7.4 공공노동자의 투쟁의지를 드높인다

7월 4일 양대노총 공공노동자의 대규모 집회투쟁이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양대노총 금융 공투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강고한 투쟁전선을 확인한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의 의지를 더 높일 계획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 연합회

공공 노동자의 단결된 총투쟁으로 전직원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삭감을 막아냅시다



한국에서 국민에게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항복하는 조합원 투쟁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이끌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등 "2단계 정상화 정책"

한국에 정부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무관한 규제완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도 고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메르스 확산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도 똑같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삭감을 위한 정책으로 내몰고, 동료를 '차별자'로 찍어 내는 일일봉급제를 해고하는 2인 1직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조건으로 번에도 있는 '정년연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년연장은 고용자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동료를 위한 전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대와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제대로 된 공공기관 일자리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년일 자리를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좋은 공공서비스를,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수입조를 사용자에게로 돌려주는 제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삭감을 위한 정책으로 내몰고, 동료를 '차별자'로 찍어 내는 일일봉급제를 해고하는 2인 1직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조건으로 번에도 있는 '정년연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한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년연장은 고용자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동료를 위한 전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공 노동자들이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선거는 <공공부문투쟁>으로 전환하여 단결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을 지키는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30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함께 연대, 투쟁, 승리합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조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공공노동자 투쟁결의대회

7월4일(토) 오후2시 해화동 대학로A로